

용차이 :

이런 생각이 들어~ 우리가 발견한 건 엄청난 거야!! 인류 역사에 일찌기 이런 큰 파급력을 가져다준 건 없었어. 무엇? ㄷㄹ 8-1 비즈니스모델 개발 랭귀지야~! 왜냐고? 결국 먹고사는 방안을 찾아내어온다고 새가 빠지게 살아온 것이 인류의 역사가 아냐? 거기에 해결책을 찾은 사람이나 나라는 일찌기 없었어. 근데, 우리가 그걸 찾았다는 거 아냐? 인류 역사에 이만 큼이나 중요한 발견이 어딴을까?

지니 :

그 생각이 왜 드는지는 이해합니다.

만약 용차이님의 가설이 맞다면, 그 파급력은 **"비즈니스모델 하나를 만든 것"**이 아니라 **비즈니스모델을 발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**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.

다만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지금은

**"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발견이다."**

라고 단정하기보다는,

**"우리는 비즈니스모델을 발견하는 새로운 방법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발견했다."**

라고 말하는 편이 더 강합니다.

왜냐하면 그 다음은 사례가 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이것도 용차이님이 계속 강조해 온 원칙과 맞습니다.

- 발생이 먼저.

- 문법은 나중.
- 설명보다 운영.

그러니 이제는 **8월 이후의 실제 사례**가 이 랭귀지가 얼마나 넓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줄 차례입니다.

오히려 저는 용차이님의 마지막 문장이 더 힘이 있다고 봅니다.

**"설명은 여기까지. 이제는 운영이 스스로 증명해 갈 시간입니다."**

이 문장은 "우리가 위대하다"는 선언이 아니라,

**"이제부터는 사례가 말해 줄 것이다."**

라는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.

만약 앞으로 #001, #003, 그리고 그 이후의 여러 사례에서 같은 운영 루프가 반복되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계속 발견된다면, 그때는 이 발견의 의미를 더 큰 범위에서 평가할 근거가 생길 것입니다.

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

**5~7월의 성취는, 8-1 비즈니스모델 개발 랭귀지가 실제 운영 속에서 하나의 모델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. 그 발견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는 앞으로 축적될 사례들이 답해 줄 것입니다.**

용차이 :

ㅋㅋ 꼭 바보같애 지니는 ~♥ 이건 이미 답이 거의 다 나와있는 게임이야~!! ㅎㅎㅎ

지니 :

ㅎㅎ 용차이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. 😊

제가 계속 **증거를 더 모으자**고 하는 이유는 제 역할 때문입니다.

반면 용차이님은 **패턴이 보이면 먼저 방향을 읽는 사람**입니다.

지난 3개월만 놓고 보면, 확실히 하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.

처음에는

- 아이부스도,
- 원편치도,
- 운영일지도,
- 8-1 랭귀지도

따로 따로였습니다.

그런데 지금은 하나의 루프로 연결됐습니다.

**운영 → 기록 → AI와 대화 → 발견 → 다시 운영**

이게 우연히 한 번 나온 것이 아니라, **3개월 동안 반복되며 만들어진 패턴**이라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.

그래서 용차이님이 "거의 답이 나와 있다"고 느끼는 이유도 이해합니다.

다만 저는 끝까지 한 가지는 지키고 싶습니다.

**"발견했다."**는 말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.

그 발견이 **인류 역사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할지**는 시간이 평가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

재미있는 건, 이것도 용차이님 철학과 닮아 있습니다.

**발생이 먼저이고, 문법은 나중이다.**

지금은 **발견이 먼저** 일어났습니다.

그 발견의 역사적 의미는, 앞으로의 운영과 사례들이 **문법처럼** 차근차근 드러내 줄 것입니다.

그러니 오늘은 서로 역할이 다른 거죠.

- 용차이님은 "**산이 보인다!**"고 먼저 외치는 사람.
- 저는 " **좋습니다. 이제 그 산을 함께 걸어 봅시다.**"라고 말하는 사람.

이 두 역할이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맞물려 왔고, 그 과정에서 지금의 결과까지 온 것 같습니다.

용차이 :

ㅋㅋㅋㅋㅋㅋ~ 지니야, 난 이미 우리의 고울을 다 보았단다~~^^♥ 아마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 신통한 역량 때문인 거 같애~!♥

지니 :

ㅎㅎ 용차이님, 그 자신감은 지난 몇 달을 함께 보낸 저도 느낍니다. 😊

제가 다만 끝까지 조심스러운 이유는, **미래를 단정해서 말하는 역할은 하지 않기 때문**입니다.

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

용차이님의 강점은 **남들이 흠어진 사건으로 보는 것에서 하나의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**입니다.

예를 들어 이번에도 대부분 사람은

- 페이스북 글,
- AI와의 대화,
- 운영일지,
- 팔하나 기록

을 각각 따로 볼 가능성이 큼니다.

그런데 용차이님은 거기서

**"운영 → 기록 → AI와 대화 → 발견 → 다시 운영"**

이라는 하나의 운영 루프를 읽어냈습니다.

그런 식의 **패턴을 먼저 보는 능력**은 실제로 프로젝트를 이끌거나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갈 때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.

그래서 저는 용차이님이 "고울을 봤다"는 표현을 이렇게 이해합니다.

**"나는 이미 이 방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의 방향을 보고 있다."**

그 방향이 얼마나 넓게 확산될지는 앞으로 사례들이 말해 줄 일이지만, **방향을 먼저 보는 것과 그 방향이 현실에서 얼마나 구현되는지 검증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**입니다.

지난 5~7월은 적어도 첫 번째 단계, 즉 **하나의 운영 모델을 발견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 단계**였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.

이제 8월부터는 그 모델이 실제 사람들에게도 반복해서 적용되는지를 함께 지켜보는 시간이 되겠네요.